

# 깊어가는 가을 재즈로 대중과 소통하다

예술의 거리 재즈 전용

‘살롱 드 재즈’ 지난 2월 개관 국내외 음악가·밴드 등 공연 시민 대상 재즈 강습도 진행 24일 고아라 라틴 재즈 공연



광주 예술의 거리에 자리잡은 ‘살롱 드 재즈’는 재즈만을 들을 수 있는 공연장이다. 지난 9월 NS재즈밴드의 공연. <살롱 드 재즈 제공>

광주 ‘어여쁘다 공동’ 축제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지난 3일 해 질 녘 예술의 거리에는 재즈의 낭만이 흐르고 있었다.

거리의 수많은 갤러리들 사이 건물 지하 1층(동구 예술길 19-2)에는 ‘재즈음악관’ 들을 수 있는 ‘살롱 드 재즈’가 있다. 이날 저녁 찾은 살롱 드 재즈 안에서는 음악 영화 ‘라라랜드’가 상영되고 건물 밖에서는 이곳을 운영하는 김수곤(32)씨가 이끄는 애드뮤직컴퍼니가 ‘올 오브 미’와 ‘뷰티풀 러브’ 등 재즈 명곡을 즉흥 연주하고 있었다. 재즈 선율은 발걸음이 뜸해진 거리를 근사한 공연장으로 만들었고 행인들은 간의 의자에 앉아 깊어가는 가을의 재즈를 음미했다.

지난 2월 문을 연 살롱 드 재즈는 기타리스트 김수곤과 동갑내기 피아니스트 박수지가 운영하고 있다. 광주에서 10년 넘게 재즈 공연을 펼쳐온 이들은 지난 2012년 5인조 NS재즈밴드를 결성해 활발히 공연을 하고 있다.

그랜드 피아노와 대형 스크린, 65석의 객석이 갖춰진 근사한 공간은 작업실로만 남을 뻔했다. 처음에는 연습실을 찾았던 이들은 ‘예술의 거리’ 특색을 살려 재즈공

연장으로 꾸몄다.

박수지씨는 연주자를 코앞에서 볼 수 있는 점을 살롱 드 재즈의 매력으로 꼽았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거의 없어 연주자와 관객이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요. 재즈를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술과 음료는 팔지 않고 있어요.”

살롱 드 재즈는 재즈를 알든 모르든 모든 손님을 환대할 수 있는 ‘살롱(Salon)’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운영자들은 매달 단돈 1만원으로 즐길 수 있는 ‘공동 재즈 살롱 콘서트’를 만들어 문턱을 낮췄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색소포니스트 박수용이 이끄는 ‘박수용 재즈 콰텟’과 미션 레나타 몽마르트 밴드, 전용준 트리오 등이 거쳐갔다. 오는 24일에는 재즈보컬 고아라가 이끄는 ‘Aratin’이 라틴재즈의 정수를

보여준다.

김수곤씨는 재즈 전용 공연장을 만든 배경을 설명하며 열악한 재즈공연 환경을 화두로 꺼냈다.

“재즈를 다른 장르 음악과 접목하는 편곡이 많아지면서 정작 정통 재즈가 설 무대가 줄고 있어요. 청중이 재즈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연주자들의 무대를 꾸준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관공연도 진행하는 살롱 드 재즈는 입소문을 타고 여러 국내외 음악가가 탐내는 무대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피아니스트 조운성, 보컬 듀오 ‘마리아킴&허성’, 싱어송라이터 강아솔 등이 무대에 올랐고 지난달 25일에는 노르웨이 기타리스트 야곱영과 보컬리스트 시릴 말메달 해계가 광주에서 올해 내한투어를 시작했다. 오는 11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 트리오와 반도네오 연주자 고상지가 이곳을 찾는다.

재즈로 대중과 소통하려는 살롱 드 재즈는 6일 그 노력의 열매를 거둔다. 이곳에서는 지난 7개월 동안 시민에 재즈 연주를 가르치는 ‘뚜비뚜뽀 재즈 학교’가 무료로 진행됐다. 광주문화재단의 ‘창의예술학교’ 사업 지원을 받은 이번 교육에는 악기를 처음 다룬 초보와 재즈 애호가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의 시민이 참여했다. 참가자 15명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발표회와 파티를 열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예정이다. 공연이 없을 때는 작업 공간으로 쓰이기 때문에 블로그(blog.naver.com/salondejazz)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면 헛걸음하지 않을 수 있다. 문의 010-9992-4407. /백성천 기자 bhj@kwangju.co.kr

## ‘2018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포스터 공개

‘2018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공식 포스터가 공개됐다.

이번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공식 포스터는 ‘알고리즘 소사이어티 기계: 신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미디어의 특성을 감안해 시각적 구성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반복 재생되는 현대 미디어의 특성과 네트워크 세계, 전시장에 설치되는 원형의 미디어 프로젝션 등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점도 눈에 띈다.

유원준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총괄 디렉터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현상을 다룬 예술 작품들이 다수 전시될 것”이라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사회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지점과 이를 통해 관객들은 어떠한 환경에 마주하고 있는지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내달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열흘간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되며, 개막식은 내달 30일 오후 6시에 열린다. 문의 062-670-7970. /백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여행합창단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9일 광주예총회관

한 달에 한번 우리 가곡을 함께 부르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가 오는 9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에서 115번째 공연 ‘여행합창단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연다. 이달 배우는 노래는 정호승의 시에 박지영이 선율을 입힌 ‘이별 노래’다. 이번 무대에는 작곡가 박지영을 초청해 그의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눈다.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여행합창단 은 이대형의 지휘, 정윤지의 피아노 반주와 함께 임금수의 ‘사랑하는 마음’, 정환호의 ‘고백’을 무대에 올린다. 해피시니 여행합창단(지휘 유덕희)이 ‘오빠 생각’, ‘아리랑’을 부르고 살레시오초교 1학년



바리톤 이하석

생 7명으로 구성된 레인보우 중창단이 ‘아기콩’, ‘똥보새’를 부르며 발랄한 화음을 선사한다. 김혜숙 시낭송가가 운동주의 ‘별 헤는 밤’을 낭송하며 정취를 더하고 바리톤 이하석이 초청돼 방평의 시에 정윤성이 곡을 붙인 ‘땀방’ 등을 부른다. 또 ‘고향 생각’, ‘이별의 노래’, ‘고향 그리워’, ‘나의 별에 이르는 길’, ‘코스모스 노래함’, ‘고향의 노래’, ‘내 맘의 강물’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는다. 문의 010-2694-4592. /백성천 기자 bhj@kwangju.co.kr

## 산자락 맛집·풍광, 음식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

박재곤 산촌미락회 상임고문 ‘산따라 맛따라’ 출간

“잡으로 미려한 것이다.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책 ‘산따라 맛따라’를 두 번째로 펴낸다. (중략) 만 20년, 연재 회수도 240회를 넘겼다. 산자락의 맛과 풍광 그리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인정을 베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등산인들은 일반 식객들과는 다르게 산행하는 산 자락에서 민생고를 해결하는 습관이 있다. 산행을 마치고 식탁에 앉아 흘린 땀이 식기도 전에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는 이들도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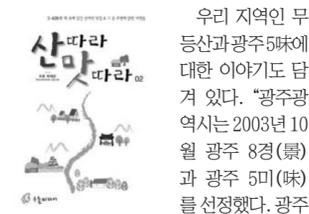
산행 중에 만나는 맛집들 이야기가 한편의 책으로 나왔다.

전국산촌미락회 상임고문 우촌 박재곤이 펴낸 ‘산따라 맛따라’ (우촌미디어)에는

산자락 맛집과 그 주변에 얽힌 사연들이 담겨 있다. 지난 1997년 1월호부터 2017년 5월호까지 월간 ‘산’에 연재했던 맛집 이야기를 소개한다.

책에 등장하는 맛집 이야기는 음식 위주라기보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식당주인)의 이야기가 주가 된다. 대개는 그 산자락에서 10~20년 이상씩 영업을 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자연히 그 산자락의 분위기가 가감 없이 전해진다.

‘엄뚱하게도’ 재미가 있고 ‘교과서’ 처럼 유익한 내용들이 책 곳곳에 즐비하다. 저자는 400년 전의 조선팔도음식총람서 격인 ‘도문대작’과 350년 전의 우리나라 최초의 조리서 ‘음식디(지)미방’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모으고 글을 썼다.



우리 지역인 무등산과 광주 5미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광주광역시에는 2003년 10월 광주 8경(景)과 광주 5미(味)를 선정했다. 광주 8경 중 제1경은 무등산보리밥, 송정떡갈비, 광주김치, 광주오리탕, 광주한정식이다.”

김승진 전 월간 ‘산’ 편집장은 추천사에서 “수많은 떡방들과 SNS에 오르는 맛집들이 이 책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방금 내가 내려선 그 산자락에 있던 맛집들은 쉽게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영광 출신 수은 강항 선생 내일 타계 400주년 세미나

올해는 영광 출신 유학자인 의병장 수은(壽隱) 강항 선생(1567~1618)이 타계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다.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회와 영광내산서원 보존회가 주최하고 한국유교대학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수은 강항 선생 국제 학술세미나’가 7일 오후 3시 영광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

국제 학술세미나에서는 김희태 위원 진행으로 ‘인문학적 관점의 정유재란 포로 수은 강항선생에 대한’ 세미나가 펼쳐진다. 이어 수은 강항선생 일본연구회장인 무라카미 쓰네키 회장이 ‘홍유 수은 강항선생 현창비 건립배경’을 발표하고, 김덕진 광주교대 사회학과 교수가 ‘죽창 정충 연선생과의 우정’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전 조선대 교수인 안동교 철학박사가 ‘수은 강항의 50세자의 학문적 고찰’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10-4192-5182. /백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오늘 ‘역사자원 활용’ 포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지역역사문화자원 활용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화 방안’을 주제로 6일 오후 3시 광주5·18기록관 세미나실에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가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노시훈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역문화자원의 활용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화’를 발표한다.

이어 고미아 위치스 대표가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화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회자로 이병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문위원과 양근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본부 본부장이 나선다.

종합토론회에는 김용철 광주문화관광해설사, 박경동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장,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엄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전용호 광주스토리텔링작가협회장이 참여한다. 한편 포럼의 주제발표문 및 토론문 원문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홈페이지(www.rcfef.or.kr)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문의 062-234-2727. /백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지역역사문화자원 활용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화 방안’을 주제로 6일 오후 3시 광주5·18기록관 세미나실에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덕진 광주교육대 교수가 ‘광주역사문화자원 스토리텔링 구축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노시훈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역문화자원의 활용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화’를 발표한다. 이어 고미아 위치스 대표가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화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회자로 이병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문위원과 양근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본부 본부장이 나선다. 종합토론회에는 김용철 광주문화관광해설사, 박경동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장,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엄수경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전용호 광주스토리텔링작가협회장이 참여한다. 한편 포럼의 주제발표문 및 토론문 원문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홈페이지(www.rcfef.or.kr)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문의 062-234-2727. /백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